

저소득층 취업모 아동의 방과후 생활조사

—중류층 취업모 아동과의 비교

The Survey on the Low Income Children's After-School Care

동의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정 현 희

부산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최 경 순

Dept. of Home Management, Dong Eui Uni.

Associate Prof. : Jeong Hyeon-Hee

Dept. of Home Management, Pusan Woman's Uni.

Associate Prof. : Choi Kyung Soon

〈목 차〉

I. 서론

II. 연구의 배경 및 관련 연구

III. 연구방법

I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state of the children's after-school care with low income employed mothers. The survey was conducted by means of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was built on the previous studies. The sample size was 418 mothers in Pusan.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Most of the children with low class employed mothers showed the self-care state.
2. Most of the children with low class employed mothers were found to spend more time alone in their houses.
3. Most of the children with low class employed mothers tended to have more difficulties in getting contact with their mothers and they were left to prepare their

foods by themselves.

4. Most of the low class employed mothers thought that safer environment and better education were immediate problems to be solved for their childrens.

5. Most of the low class employed mothers needed after-school care facilities.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현대사회의 가족구조 변화와 취업모 증가는 아동의 보호와 교육면에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였다. 더우기 종래의 대가족 구조하에서 주요한 사회화 대행자이었던 조부모나 성인 친척과 함께 사는 경우가 매우 드물게 됨에 따라 취업모들의 자녀양육 및 교육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어머니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이 불가피하며, 그들의 가장 큰 고충이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이다(양안나, 1990; 이정숙, 1994; 한병희, 1991). 자녀양육에서 아버지 역할이 증대되었지만, 아직 많은 가정에서 아버지들의 협조가 부족하고, 적절한 부모역할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들이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취업모의 학령전 아동의 탁아와 마찬가지로 학동기 아동의 방과후 생활지도의 필요성이 절실해져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법에서도 12세까지로 입소대상 연령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방과후 아동보호 및 지도를 위한 법적 조치는 마련되어 있지만, 관련법 조항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현행 운영되고 있는 탁아기관(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은 거의 대부분이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인데(이성진, 1989), 이같이 탁아의 대상에 대한 관심이 영유아에 한정되어온 것은 탁아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 부족하여 학동기 아동에게까지 확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우기 서울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초등학교 아동의 방과후 생활실태 조차 파악되지 못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다.

중류층에 있어서는 그런대로 힘들지만 아동의 방과후 생활관리 문제를 가정 내에서 해결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취업모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이 불가피하며, 취업모가 일하는 동안 자녀양육 대행 비용 부담이 어려워 아동을 방치하거나 준방치상태로 둔다(강문희, 1990). 또한 가정의 저소득은 아동에게 직접 필요한 환경구성에 제약을 가져와 아동 성장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아동의 행동과 생활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빈곤의 세대 전이 가능성이 높다(최일섭, 1993). 그러므로 저소득층 취업모 아동은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한 아동문제 외에 중류층 취업모 아동보다 불리한 가난의 문제도 함께 갖게 된다. 이러한 저소득층 취업모 아동을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보호와 지도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취업모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 생활실태를 밝히 이제까지 연구된 선행연구의 실태조사와 더불어 방과후 아동의 생활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은 저소득층 취업모 아동생활양상의 체문제점을 고찰하고, 실제 실증적 자료를 통해 저소득층과 중류층 취업모 가정 아동의 방과후 생활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보육현황이 어떠한지를 밝히며, 아동의 방과후 생활시간 활용실태, 그리고 부모자녀의 상호작용 실태를 파악할 것이다. 아울러 부모의 탁아에 대한 요구를 분석해 봄으로써 저소득층 취업모 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 아동보호 및 지도 방안 모색의 기초 자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앞에서 진술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저소득층 취업모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 보육현황은 중류층 취업모 아동의 보육현황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저소득층 취업모 아동의 방과후 시간 활용은 중류층 취업모 아동과 차이가 있는가?

셋째, 저소득층 취업모 가정의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중류층 취업모 가정과 차이가 있는가?

넷째, 저소득층 취업모의 탁아에 대한 요구는 중류층 취업모와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의 배경 및 관련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이 저소득층 취업모 아동의 생활실태를 밝혀 저소득층 취업모 아동의 탁아 필요성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된 저소득층 취업모 아동의 생활양상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어린이보호회(1992)가 초등학교 아동의 방과후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아동의 1/3이 성인의 보호없이 방과후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옥(1993)의 보고에서는 취업모의 저학년 자녀 네 명 가운데 한 명이 자기보호 아동이다. 학령기 아동을 둔 취업모는 아동의 방과후에 어떠한 보호형태도 취하지 않으며, 또 취업모의 학동기 아동들은 부모의 보호없이 하루의 3-7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부모들은 아동이 적어도 6학년이 되어야 성인의 보호없이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최경순, 1995; 한명희, 1991).

그리고 자기보호 아동들의 방과후 생활은 주로 친구집에 놀러 가거나 놀이터에서 지내는 것, 홀로 또는 동생과 잠자거나 집안일을 하는 것, 숙제와 TV 시청, 과외학습, 학원수강 등이다(이옥, 1993). 방과후 자기보호 아동이 사고를 당하는 일은 자주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으며, 위험한 놀이에서부터 불건전한 오락문화에의 노출과 성폭행의 희생에까지

보도되고 있다.

자기보호 아동들이 받는 위험 요인으로는 또래들로부터 소외, 비행 행동, 낮은 학력을 들 수 있다(Garbarino, 1984). 또한 자기보호 아동이 성인보호 아동에 비해 높은 수준의 불안(Long & Long, 1982)과 공포심을 갖는다(Coleman, Robinson, Rowland & Price, 1984). 그리고 책임있는 어른의 보호가 없기 때문에 부모는 아동에게 계속적인 주의를 주게 되고, 아동은 부모부재의 하루를 조심스럽게 보내야 하므로 막연한 불안감을 갖게 되며, 이러한 일들은 아동의 정서에 해를 끼칠 수 있다(Halpern, 1992). 더우기 자기보호 아동은 주위를 계속 경계하므로 타인에 대해 지나친 의심을 하기 쉬우며, 자신의 가족 외에는 자신을 돌봐 주는 곳이 없다는 단절감이 심화될 수 있고, 친구 집을 방문하거나 집 밖에서 노는데 제한을 받는다. 그리하여 또래들로부터 소외되기도 한다. 또한 저소득층 자기보호 아동은 성인보호 아동에 비해 학업성취나 언어능력이 낮고(Woods, 1972),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도나 사회적 능력도 낮다(Galambos & Garbarino, 1985; Vandell & Ramanan, 1991).

그리고 부모와의 대화부족과 애정결핍, 정서적 불안정, 부모가 신경을 써서 챙겨주지 못하는 데서 기인되는 건강과 안전관리상의 문제도 있다(김재은, 1989; Halpern, 1992). 결단력도 부족하고 폐쇄적, 공격적 경향이 있는 것(이옥, 1995)으로도 보고되고 있다. 현대 가족이 소인수 핵가족화하고 주부의 취업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많은 아동들이 자기보호 아동이 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한편 자기보호 아동이 저소득층의 아동일 경우 이 아동들은 가난과 자기보호의 이중부담을 지니게 되므로 더 힘들다. 부모의 저소득은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질제공의 제약을 가져오며, 가난이 부모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때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저소득층의 연구는 주로 빈곤지역에 거주하는 불안정한 저소득자로 가구주의 학력이 낮은 가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김영모, 1990; 김영모와 김성천, 1986). 가정의 빈곤이 아동에게 주는

영향은 학업성취, 아동 행동상의 문제, 건강상의 문제, 주거환경의 과밀집과 위생적이지 못한 것의 영향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정환경조사(HOME)에 의하면 이러한 저소득층 가족은 중류층에 비해 낮은 점수를 기록했고, 이것은 물리적 환경과 양육 환경의 질을 의미하며, 나쁜 영양상태, 아동발달의 지연, 학교에서의 낮은 성취와 상관이 있었다(Bradley, 1985). 물질에 의해 자극 받을 수 있는 적합한 자극이 결핍되고(Luster & Rhoades, 1989), 저소득에 의한 부모의 갈등과 심리적 스트레스, 낮은 자아감은 적절한 부모역할 수행에 지장을 가져와 아동에게 좋은 모델링을 제공하지 못한다(김인숙, 1992; 최경순, 1995; Hofferth, 1987). 또한 주거 공간의 부족은 행동의 제약(Schoplor & Keating, 1979)을 가져온다.

특히 저소득층 자기보호 아동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보내는데(Long & Long, 1982), 놀이의 활동공간이 제한적이고 적절한 놀이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학습활동의 부족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아동에게 내적 불만을 증가시킬 수 있다. 게다가 저소득층 자기보호 아동은 혼자 또는 형제들과 집에 있음으로 해서 텔레비전을 필요이상 많이 보게되므로 교육적 문제 또한 크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거주지는 중류층 거주지에 비해 집주위 곳곳에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더 있다(최경순, 1995). 그러므로 가난과 자기보호의 이중적 부담을 지니고 있는 저소득층 취업모 아동에게는 책임있는 성인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 되어야 한다. 학동기 아동은 영유아와는 달리 지적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이면서 학교에서의 학습과제 수행과 사회적 기술의 습득이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학동기 저학년 자기보호 아동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교육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 아동의 부모가 호소하는 문제 중에서 생활유지를 위한 경제적 어려움 다음으로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이다. 그들은 부부가 생계유지를 위해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불충분한 소득으로 인하여 아동들을 충분히 교육하고 보호하기가 어렵다(최경순과 정현희, 1994).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

할 때 저소득층은 세대전이가 될 것이며, 실제로 저소득층 자기보호 아동의 낮은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에 대한 낮은 적응(Galambos & Garbarino, 1985)이 또다른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예방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가난의 세대 전이를 막기 위해서라도(최일섭, 1993)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경험을 조기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방과후 탁아가 주로 취업모의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하기 위하여 집을 비우는 취업모 가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의 선정은 부산시에서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류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초등학교 2개교를 임의 표집하여 각 학교의 3학년에서 취업모를 둔 남·여 아동 418명과 그들의 부모로 하였다. 특히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대한 저학년 아동의 인식 부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학급 아동 972명 전원에게 질문지를 배포, 그들의 어머니가 질문에 대하여 답하도록 하였다.

저소득층과 중류층의 분류 기준은 저소득층과 중류층의 거주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였다. 저소득층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여러 계층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단일 지표의 사용보다 계층을 더 잘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되나, 여러 지표중 어느 지표에 더 가중치를 두느냐의 결정이 어렵고(오선영과 이숙, 1993), 연구들마다 계층의 지표 기준이 소득(윤정혜와 이기춘, 1994), 거주지(이순형, 신양재, 김영주, 1991), 직업(오선영과 이숙, 1993) 등 다양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중류층 밀집 거주지에 따라 임의 표집하였고, 거주지별로 나누었을 때 부모의 학력, 직업, 수입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계층 분류는 우선적으로 거주지를 고려하였고, 저소득층 거주라도 자기보호 아동의 아버지 직업이 자영업이나 사무직이면서 고졸이나 대졸이며,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중류층으로, 중

류층 거주지에서 이와 반대의 경우는 저소득층으로 분류하였다. 소득 100만원 기준은 선행연구(오선영과 이숙, 1993; 이순형외2, 1992; 윤정혜와 이기춘, 1994)에서의 저소득층 소득 기준치를 참고로 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965부 가운데 비취업모를 제외하고 1주일에 3일 이상 가정 밖에서 소액이라도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어머니 418명의 자료를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항 목		저소득층	중류층
아동의 성별	남	113(27.03)	101(24.26)
	여	101(24.16)	103(24.64)
아버지 교육	국 졸	26(6.22)	0(0.00)
	중 졸	72(17.22)	34(8.13)
	고 졸	83(19.85)	128(30.62)
	전문대졸	12(2.87)	42(10.05)
	대 졸	1(0.24)	20(4.78)
어머니 교육	국 졸	41(9.80)	3(0.72)
	중 졸	102(24.40)	70(16.75)
	고 졸	35(8.37)	113(27.03)
	전문대졸		46(11.00)
	대 졸		8(1.91)
아버지 직업	무 직	4(0.95)	
	단 순	7(1.67)	
	피고용	60(14.35)	4(0.95)
	자 영	32(7.65)	104(24.88)
	사 무	61(14.60)	102(24.40)
	전문직		38(9.09)
	대기업주		6(1.43)
어머니 직업	일정한 직업	74(17.70)	98(23.44)
	시 간 제	67(16.03)	76(18.18)
	부 업	72(17.22)	31(7.41)
가 족	핵가족	143(34.21)	122(29.19)
	확대가족	70(16.75)	83(19.86)
가계 월소득	100만원미만	224(53.59)	6(1.44)
	100만원이상	2(0.48)	186(44.50)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연구자들이 연구목적에 부합되게 선행연구(이숙, 1993; 최경순과 정현희, 1994; 한명희, 1991)를 참고로 하여 제작한 질문지이며, 질문지 구성은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분항, 아동의 방과후 생활실태를 묻는 분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아동의 방과후 보육 현황, ② 아동의 방과후 생활시간활용 ③ 아동의 부모와의 상호작용 ④ 방과후 탁아에 대한 요구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24분항으로 되어 있다.

조사방법은 1995년 5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어머니 25명에게 연구자들이 구성한 질문지로 예비 조사를 하였으며, 이 결과를 기초로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본조사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3. 조사절차 및 자료처리

본 조사는 1995년 6월 1주부터 6월 3주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조사자들이 부산시내에 있는 2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에게 협조를 부탁하였다. 학교 선정은 중류계층과 저소득층이 있는 지역의 초등학교를 임의 표집하였다. 질문지는 아동을 통해 가정에서 전달하고 응답은 그들의 어머니에게 하도록 당부하였다.

수집된 418부의 자료 처리는 연구문제에 따라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증, X²검증 등을 산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모든 경우의 유의수준은 $\alpha = .05$ 로 하였으며, 이상의 통계처리는 SPSS PC+ 프로그램으로 하였다.

IV .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장에서는 제기된 연구문제에 따라 조사결과를 아동의 방과후 보육현황, 아동의 방과후 생활시간활용, 부모-자녀간 상호작용, 아동의 방과후 탁아에 대한 취업모의 요구로 대별해서 저소득층과 중류층 가정을 비교 정리하였다.

1. 저소득층과 중류층 취업모가정 아동의 방과후 보육 비교

저소득층 취업모 가정의 학동기 아동의 방과후 보육실태 분석을 위해 중류층 취업모 가정의 아동생활과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 저소득층과 중류층 취업모가정 아동의 방과후 보육 차이

문항		저소득층	중류층
방과후 보호자	유	125(54.3)	115(61.2)
	무	105(45.7)	73(38.8)
		X^2 2.09	
방과후 생활	학원에 보냄	152(66.1)	153(81.4)
	밖에서 놀이	12(5.2)	10(5.3)
	집에서 보냄	31(13.5)	13(6.9)
	아동이 알아서	35(15.2)	12(6.4)
		X^2 16.74**	
귀가시간	아동이 먼저	94(41.9)	98(52.8)
	어머니가 먼저	26(11.3)	23(12.2)
	양쪽이 비슷	110(47.8)	67(35.6)
		X^2 6.17*	

* $p < .05$ ** $p < .01$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소득층과 중류층의 취업모가정 아동의 방과후 보육 실태 비교에서는 학교가 파한 후 아동이 집에 돌아왔을 때 가정에 보호자 유무는 계층간에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즉 계층에 상관없이 보호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비율이 높았다. 계층간 차이는 없지만 보호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방과후 일정 시간을 성인의 보호없이 지내는 아동의 비율이 24%~33% 정도라고 보고한 이욱(1993), 한명희(1991), 한국어린이보호회(1992)의 보고보다 더 높은 결과이다. 이는 선행연구보다 본 연구가 수행된 기일이 최근이며, 기혼여성의 취업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점으로 볼 때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며 앞으로 취업모 가정의 늘어나는 만큼 방과후 아동생활을 돌볼 성인이 부재한 가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아동복지적 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로 생각된다.

방과후 아동생활은 계층간에 유의한 차이($X^2 = 16.74$, $p < .01$)가 인정되었는데, 다수 아동이 방과후 시간을 주로 사설학원에서 보내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에 비해 중류층 아동이 학원에서 보내는 비율이 높음은 강문희(1990)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듯이 중류층 취업모가 경제적 혜택을 자녀에게 더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므로 학원에 보내는 비율이 저소득층 아동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이욱(1993), 최경순(1995) 등의 선행연구를 지지해 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에 집에서 또는 스스로 자기보호를 하는 아동의 비율은 중류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많았다. 이는 저소득층 취업모 아동이 중류층 취업모 아동에 비해 성인의 보호없이 홀로 또는 형제와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저소득층 가정이 중류층 가정에 비해 준방치(혼자알아서, 홀로 집에) 아동의 비율이 높은 것은 앞서서도 언급되었듯이 아동 보호 및 교육면에서 제고되어야 할 사회적 문제임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결과에서 사설학원이 부모의 아동보호 및 통제 역할을 대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계층에 관계없이 학원 수강율이 높은 것은 한국 가정의 교육과 외열의 일면을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아동의 방과후 귀가시간은 저소득층과 중류층 간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의미있는 차이($X^2 = 6.17$, $p < .05$)가 인정되었다. 즉, 중류층의 경우는 저소득층에 비해 어머니보다 먼저 귀가하는 아동의 비율이 더 높았고, 저소득층은 중류층에 비해 어머니와 귀가시간이 비슷한 아동의 비율이 높았다. 이 항목은 단순히 아동과 취업한 어머니들의 귀가시간 비교였기 때문에 본 문항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더 세밀한 내용의 추후 조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의 해석으로 한가지 추정되는 것은 중류층의 취업모에 비해 저소득층의 취업모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 불특정 임시직에 종사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아동이 귀가 했을 때 어머니가 집에 먼저 와 있는 경우도 있고, 한편으로는 장시간 노동으로 귀가시간이 자녀에 비해 훨씬 늦기도

하는 불안정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계층간 다소 차이는 있지만 두 계층 모두에서 아동이 홀로 또는 형제와 집을 지키거나 어머니의 귀가시간까지 바깥에서 소일하며 배회하다가 어머니의 귀가시간에 맞추어 집을 찾는 아동의 비율이 높다는 이러한 사실에서 학동기 자기보호 아동들의 방과후 생활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됨을 알 수 있다.

2. 학동기 아동의 방과후 생활시간활용 실태

〈표 3〉 저소득층과 중류층 취업모가정 아동의 방과후 생활 차이

항 목		저소득층	중류층
학원수강 종류	개인과의	12(5.2)	4(2.1)
	그룹과의	11(4.8)	10(5.3)
	컴퓨터, 속셈	147(63.9)	129(68.6)
	예체능학원	33(14.5)	36(20.3)
	독서실, 공부방	27(9.6)	7(3.7)
		X ²	9.58*
학원수강 지도목적	재능개발	26(11.3)	33(17.6)
	정서발달	13(5.7)	26(13.7)
	학교공부에도움	166(72.2)	109(58.0)
	사회성발달	21(9.1)	16(8.4)
	남들이 하나까	4(1.7)	44(2.3)
		X ²	10.55*
학원수강 지도비용	15만원이상	3(1.3)	7(3.7)
	10-15만원	87(37.8)	90(47.9)
	5-10만원	31(13.5)	44(23.4)
	5만원이하	78(33.9)	37(19.7)
	비용안됨	31(13.5)	10(5.3)
		X ²	19.60***
가계부담 정도	매우힘듦	28(12.2)	4(2.1)
	부담스러움	82(35.7)	52(27.7)
	적당함	73(31.7)	83(44.1)
	부담스럽지않음	47(20.4)	49(26.1)
		X ²	17.97**

* p<.05 ** p<.01 *** p<.001

〈표 3〉에서 보듯이 방과후 저학년 아동생활은 학원수강의 종류(X²=9.58, p<.05), 학원수강지도 목적

(X²=10.55, p<.05), 수강비용(X²=19.60, p<.001), 가계부담정도(X²=17.97, p<.01) 모두에서 저소득층과 중류층 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

학원수강 종류의 경우 저소득층이 중류층에 비해 공부방에 다니는 아동의 비율이 높았고, 중류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컴퓨터나 속셈학원, 예체능학원에 다니는 아동의 비율이 높았다.

학원수강 지도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경우 중류층에 비해 학교 공부에 도움, 중류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재능개발, 정서발달에 치중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계층에 상관없이 학교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학원에 보내는 가정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한국 가정의 교육열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학업 성취가 우선적으로 중요시되는 한국의 교육분위기에서 경제적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 부모들은 아동의 다양한 발달을 고려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아동발달은 전인적 교육을 의미하므로 학업성취외의 제영역 발달을 도우는데 사회 공교육의 차원에서 관심을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원수강지도의 비용은 저소득층의 경우 중류층에 비해 5만원 이하의 비율이 높은 반면 중류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5-10만원, 10-15만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았다. 가계부담정도는 저소득층 취업모가 중류층 취업모에 비해 비용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다. 학원 수강에 드는 비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남은 비용자체가 교육의 질을 직접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분위기로 보아 비용도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교육이 계층 전이의 가장 중요 수단인 우리의 사회 분위기를 생각할 때, 교육의 질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고, 복지적 차원에서 저소득층의 가계운영, 아동의 전인 발달도 고려된 양질의 방과후 보호 및 지도 시설이 요청됨을 알 수 있다.

〈표 4〉 저소득층과 중류층 아동의 방과후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차이

항 목		저소득층	중류층
어머니와의 대화(평일)	1시간정도	69(30.0)	74(39.4)
	2시간정도	65(28.3)	41(21.8)
	3시간정도	41(17.8)	38(20.2)
	3시간이상	55(23.9)	35(18.6)
		X^2	5.32
어머니와의 대화(휴일)	1시간정도	27(11.7)	36(19.0)
	2시간정도	20(8.7)	29(15.4)
	3시간정도	65(28.3)	24(12.8)
	3시간이상	118(51.3)	99(52.8)
		X^2	4.85
자녀혼자있을 경우연락정도	수시로연락	117(50.8)	107(56.9)
	편지또는메모	48(20.9)	34(18.1)
	연락하지않음	65(28.3)	47(25.0)
		X^2	5.22
방과후아동 생활중 가장 걱정거리	식사제공	68(29.6)	52(27.6)
	교육지도	89(38.7)	70(37.3)
	교통사고	63(27.4)	53(28.2)
	불량비디오	4(1.7)	5(2.7)
	유괴, 납치	6(2.6)	6(4.3)
		X^2	2.37

3. 학동기 아동의 방과후 부모와의 상호작용

1)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과후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 실태 비교에서는 저소득층과 중류층 가정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즉 계층에 상관없이 취업모 가정은 자녀와의 대화 시간은 평일 1시간 정도, 휴일에는 3시간 정도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차이가 나지 않음은 한국 어머니의 양육 특성에서 그 이유의 일부를 찾을 수 있다. 한국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태도는 사랑, 희생, 정성이며(정현희, 1992; 이숙, 1988), 양육행동에 있어서 계층간의 차이는 서구와 달리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니와 수시로 연락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나 전혀 연락하지 않는 취업모도 상당수(25% 이상) 있었다. 연락하지 않음에 대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을 하기 어려우나, 다른 연구(최경순, 1995)에 의하면 연락이 힘들어서이거나 연락 방법이 없어서가 상당수이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취업모가 비상시를 대비한 연락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방과후의 아동생활에 대한 취업모의 주된 걱정거리는 계층에 관계없이 아동의 교육지도, 식사문제, 교통사고라고 하는 취업모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최경순(1995), 최인숙(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것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 생활에 성인의 돌봄이 안전, 보호, 교육의 측면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2) 아버지와 함께 하는 활동

저소득층과 중류층 아동의 방과후 아버지와 함께 하는 활동의 비교는 최경순(1995)의 아버지 양육참여도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5점리커트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와 아버지의 상호작용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5〉 저소득층과 중류층 아동의 방과후 아버지와 함께 하는 활동

항 목	저소득층		중류층		
	M	SD	M	SD	t
저녁식사	4.16	1.13	4.06	1.24	0.81
숙제나공부	2.97	1.18	2.84	1.10	1.01
운동이나놀이	2.61	0.92	2.86	0.95	2.31*
복 용	2.92	1.15	2.71	1.33	1.42
외 식	2.54	0.84	2.91	0.86	3.71***
생활습관지도	3.38	1.01	3.44	0.95	0.52
예절지도	3.33	0.99	3.42	0.95	0.81
대화나누기	3.07	1.38	3.60	0.94	4.69***

* $p < .05$ *** $p < .001$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방과후생활 중 아버지와 상호작용 정도는 운동이나 놀이($p < .05$), 외식, 대화나누기($p < .001$)에서 저소득층과 중류층간에 아버지와 자녀의 상호작용 정도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즉, 운동이나 놀이, 외식이나 대화를 함

게 하는 정도는 중류층 아버지가 저소득층 아버지에 비해 높았다. 이는 중류층 아버지들이 자녀양육이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실제 양육 참여율이 높다는 선행연구(최경순, 1992)와 일치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아버지와 아동이 함께하는 활동이 저녁식사를 같이한다는 항목외에는 거의 평균이 높지 않음을 볼 때, 계층을 불문하고 자녀교육에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에서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아동의 지적 교육(숙제나 공부)보다 생활 교육(습관, 예절지도) 면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경향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규칙적으로 행해야 하는 숙제나 공부지도보다는 불규칙적으로 행할 수 있는 눈에 띄는 아동의 나쁜 습관교치기나 거슬리는 버릇을 지도하기에 아버지 참여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4. 취업모의 학동기 아동을 위한 방과후 탁아에 대한 요구실태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자기보호는 저소득층과 중류층간에 차이가 인정되었다(p<.05). 그리고 저소득층 취업모가 중류층에 비해 자기보호가 가능한 연령을 더 저학년으로 간주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실태조사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의 해석은 어렵지만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추정해 보면, 중류층은 아동이 어린 경우 대리모를 구할 수 있는 비용에서 더 용이하고, 저소득층은 그럴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더 어린 나이부터 탁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방과후 저학년 아동을 위한 탁아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과 중류층간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즉, 소득 계층에 관계없이 다수의 취업모들이 아동의 방과후 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탁아시설을 필요로 하는 목적은 계층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즉, 저소득층 취업모의 경우 중류층에 비해 자녀의 안전, 숙제나 보충학습을 기대하는 비율이 높

〈표 6〉 저소득층과 중류층 취업모의 방과후 탁아요구 차이

항 목		저소득층	중류층
자기보호 학 령	국교 3	26(11.3)	18(9.6)
	국교 4	52(24.8)	45(23.9)
	국교 5	63(27.4)	67(35.7)
	국교 6	64(27.8)	45(23.9)
	중학생이상	25(10.8)	13(6.9)
		X ²	7.25*
방과후탁아 시설요구	매우필요	27(11.7)	26(13.8)
	필 요 함	103(44.8)	93(49.5)
	별로필요치않음	81(35.2)	54(28.7)
	전혀필요치않음	19(8.3)	15(8.0)
		X ²	1.69
방과후 탁아시설 요구목적	자녀의안전	75(32.6)	47(25.0)
	숙제지도보충학습	62(27.0)	47(25.0)
	놀이, 사회정서성 놀이, 사회정서성	32(13.9)	33(17.6)
	독서지도	8(3.5)	7(3.7)
	생활교육	30(13.0)	23(12.2)
	예체능교육	23(10.0)	31(16.5)
		X ²	5.90*
탁아서비스 요구일수	주5일이상	92(40.0)	76(41.5)
	주 3-4일	83(36.1)	63(33.5)
	주 1-2일	55(23.9)	47(25.0)
		X ²	0.26
탁아서비스 요구시간 (하루)	2-3시간	186(80.9)	152(80.9)
	4-5시간	29(12.6)	25(13.2)
	6시간이상	15(6.5)	11(5.9)
		X ²	3.19
탁아교사의 자격	자격자원봉사자	60(26.0)	40(21.3)
	보육교사	57(24.9)	53(28.2)
	국민학교교사	98(42.6)	82(43.6)
	사회복지사	15(6.5)	13(6.9)
		X ²	2.76
방과후탁아 참여여부	맡기겠다	184(80.0)	165(87.8)
	맡기지않겠다	46(20.0)	23(12.2)
		X ²	3.68

* p<.05

았고, 중류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놀이, 사회정서성, 예체능 지도를 기대하는 취업모의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교육활동과 레크레이션활동, 그리고 보충학습활동 등으로 나눌수 있다고 한 Posner과 Vandel(1994)의 프로그램의 일부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계층간의 차이에서 저소득층이 중류층에 비해 자녀의 안전이나 숙제 등을 더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중류층은 자녀보호, 학원수강 등에서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인 발달을 고려한 놀이, 사회정서, 예능지도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탁아서비스 요구 일수에 대해서는 계층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즉 계층에 상관없이 주5일 이상을 요구하는 취업모의 비율이 높았고, 하루 2-3시간을 희망하는 취업모의 비율이 높았다. 취업모가 원하는 탁아교사도 계층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계층에 상관없이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자를 원하는 비율이 높았고, 방과후 탁아 시설이 있다면, 자녀를 맡기겠다고 응답한 취업모가 80%이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정숙(1994), 최인숙(1991)의 결과와 유사한 비율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취업모들이 계층에 관계없이 방과후 탁아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V .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저소득층 취업모 아동들의 방과후 생활실태를 중류층 취업모 아동과의 비교를 통해 저소득층 취업모 자녀들의 방과후 생활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취업모 자녀들의 상당수가 방과후 보호자 없이 준방치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아동이 보호자없이 방치되는 비율이 높았다. 방과후 생활 중에는 대다수 아동이 학원수강을 하였으며, 특히 중류층 아동은 학원수강 비율이 저소득층에 비해 높았고, 저소득층 아동은 중류층에 비해 집에서 또는 아동이 알아서 자기보호를 하는 비율이 높았다.

2. 자기보호 아동의 학원수강 목적은 계층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중류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재능개발

이나 정서발달에서, 저소득층은 중류층에 비해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에 목적을 둔 비율이 더 높았다. 학원수강 비용에 대한 가계 부담을 느끼는 부모는 저소득 취업모가 중류층 취업모에 비해 비율이 더 높았다.

3. 방과후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의 정도는 계층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화시간은 계층에 상관없이 반수 이상이 평일의 경우 2시간 미만이었으며, 휴일은 3시간 이상인 경우가 높은 비율이었다. 자녀가 집에 혼자 있을 경우 연구대상 취업모의 반수 정도는 수시로 연락을 하였으나, 전혀 연락을 하지 않는 어머니의 비율도 적지 않았고, 아동의 방과후 생활 중 걱정되는 점은 교육, 식사,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이었다.

4. 방과후 아버지와의 상호작용 정도는 저소득층 아버지가 중류층에 비해 운동이나 놀이, 외식, 대화 나누기를 함께 하는 정도가 낮은 경향이였다.

5. 아동의 자기보호 연령은 초등학교 5,6학년 이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취업모가 많았고, 계층에 상관없이 다수 취업모들이 방과후 탁아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탁아의 목적에 있어서 저소득층 취업모가 자녀의 안전을 제일 중요한 목적으로 보았고, 중류층 취업모에 비해 비율도 높았다. 탁아 일수는 계층에 상관없이 주 5일 이상을 희망하는 취업모가 많았고, 하루 탁아서비스 시간은 대다수 취업모가 2-3시간을 원하였다. 탁아교사는 초등학교 교사 자격을 갖춘자를 희망하였고, 조사대상 취업모의 80%이상인 방과후 탁아시설이 있다면 자녀를 맡기겠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저소득층과 중류층의 자기보호 아동은 모두 방과후 탁아가 필요함을 알 수 있고, 방과후 생활시간 활용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이 가정의 저소득으로 인해 중류층 취업모 아동보다 방과후 생활시간 활용면에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이 일부 파악될 수 있었으며, 저소득층 취업모들이 중류층 취업모보다 자녀의 안전과 교육에 대해서 더 부담을 느끼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에서 아동의 방과후 대책이나 정책을

입안할 때 저소득층과 중류층의 각기 다른 여건의 요구가 충분히 고려되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방과후 생활 여건이 불리한 저소득층의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 생활지도를 위한 사회복지 차원의 대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일주일에 3일 이상 소액이라도 가정밖에서의 수입이 있으면 취업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취업에 따른 방과후 아동생활의 구체적 내용의 차이에 대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취업 종류에 따른 보다 세부적 연구가 추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방과후 자기보호 아동의 생활여건이 그들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추후 연구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1) 김영모(1990). 한국빈곤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2) 강문희(1990). 여성의 사회진출과 영유아 보육의 필요성. 한국교육학회, 유아교육연구회 제3회 세미나.
- 3) 김성천(1986). 취업모를 위한 아동보호 서비스 비교. 사회복지연구, 20.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4) 김인숙(1992). 도시빈곤가족 여성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사회스트레스 모델의 유용성. 사회복지연구, 한국사회복지회, 4, 27-56.
- 5) 김재은(1989). 열쇠를 맨 아이-맞벌이 부부의 어린이 교육-. 대한교육보험사보, 7, 8월호.
- 6) 양안나(1990). 탁아경험 및 가정환경이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오선영, 이숙(1993). 도시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녀위탁 실태 및 탁아서비스 실태에 관한 요구조사. 대한가정학회지, 대한가정학회, 31(2).
- 8) 윤정혜, 이기춘(1994). 도시빈곤가족의 상대적 박탈. 대한가정학회지, 대한가정학회, 32(3).
- 9) 위영희(1991). 가족에 대한 지원책으로서의 탁아. 양옥승(편), 탁아연구(pp.73-96). 서울:양서원.
- 10) 이성진(1989). 지역복지를 위한 새마을 유아원의 보육기능 강화. 아동의 권리:교육, 탁아, 한국교육학회, 유아교육연구회, 한국아동학회.
- 11) 이순형, 신양재, 김영주(1991). 빈곤가정 아동의 환경지각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한국아동학회, 12(1).
- 12) 이숙(1988).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3) 이 옥(1991). 빈곤층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탁아소 프로그램의 확대방안. 양옥승(편), 탁아연구(97-120). 서울:양서원.
- 14) 이 옥(1993). 도시지역 방과후 탁아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양옥승(편), 탁아연구 2. 7-32. 서울: 양서원.
- 15) 이 옥(1995). 학령기 아동을 위한 방과후 탁아 프로그램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한국아동학회, 16(1).
- 16) 이정숙(1994). 취업모가 원하는 방과후 탁아, 논문집, 기전여전. 39-60.
- 17) 정현희(199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동의대학교 동의논문집, 19.
- 18) 최인숙(1991). 기혼 여교원 자녀양육 부담과 교내 탁아방 설치에 관한 의견조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19) 최일섭(1992). 우리나라영유아보육의 현실진단과 발전방안모색. 우리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삼성복지재단.
- 20)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1) 최경순(1995). 저소득층의 가정복지 실태:아동 양육 및 부모자녀간 활동. 부산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 3, 34-49.
- 22) 최경순과 정현희(1994). 영유아의 보육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대한가정학회지, 대한가정학회, 32(1), 75-91.
- 23) 한명희(1991).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 실태 조

- 사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 24) Bradley, R.H.(1985). *The Home Inventory* : Rationale and research. Recent Research in Development Psychopathology.
- 25) Coleman, M. , Robinson, B.E., Rowland, B.H., & Price, S.(1984). *Families with Latchkey Children*. San Francisco.
- 26) Galambos, N.I. & Garbarono, J.(1985). Adjustment of unsupervised children in a rural setting. *Journal of Child & Youth Quarterly*, 18, 131-140.
- 27) Garbarino, J.(1984). Can American families afford the luxury of childhood?. *Journal of Home Economics*, 82(1), 46-52.
- 28) Halpern, R.(1992). The role of after school programs in the lives of inner city children: A study of "Urban Youth Network". *Child Welfare*, 71(3), 215-230.
- 29) Hofferth, S.(1987). The children of teen childbearers. In S.L. Hayes & Hofferth C.H.(Eds). *Risking the Future* : Adolescent sexuality, pregnancy and childbearing. 174-206.
- 30) Long, T.J., & Long, L.(1982). Latchkey children : The child's view of self car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2-7.
- 31) Luster, T. & Rhoades, K.(1989). The relation between child-rearing beliefs and the home environment in a sample of adolescent mothers. *Family Relation*, 38.
- 32) Posner, J.K. & Vandell, D.L.(1994). Low-income children's after school care: Are there beneficial effects of after-school programs?. *Child Development* 65, 440-456.
- 33) Schopler, J. & Keating, J.E.(1979). Human crowding and personal control :An integration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86.
- 34) Swift, J.W.(1964). Effects of early group experience, the nursery school and day nursery. In M. Hoffman & I.Hoffman(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 vol. 1. NY : Russel Sage.
- 35) Vandell, D.L. & Ramanan, J.(1991). Children of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Choices in after school-care and child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7, 837-843.
- 36) Todd, C.M., Albrecht, K.M. & Colemm, M. (1990). School-age child care: a continuum of options. *Journal of Home Economics*, 82(1), 46-52.
- 37) Woods, M.B.(1972). The unsupervised child of the working mother. *Developmental Psychology*, 6, 14-15.